

김지민: 새 모양 새 Bird Shaped Bird

2024.04.06—2024.0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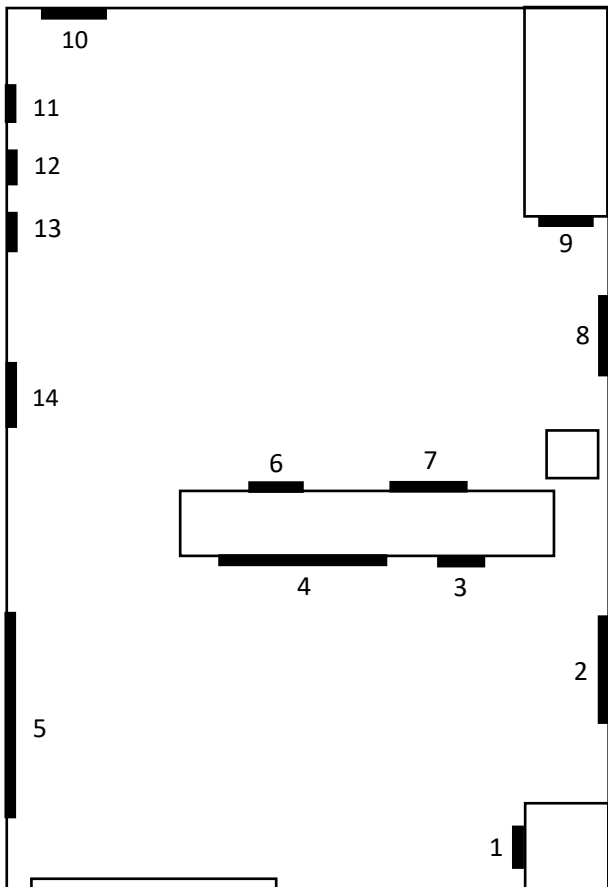
요즘 지내는 곳에는 지하도와 기차길이 많다. 그림자가 드리우고 검은 먼지가 쌓이는 이러한 시설물 근처에는 특정한 종류의 그림이 자주 그려지는 듯하다. 어둡고 칙칙한 공간의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밝은 소재의 그림들.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무던한 자연물을 소재로 한 꽃과 나비, 새와 나무가 그려진 그림들.

나는 이러한 벽화나 타일화에 관심을 두며 이번 전시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공간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대부분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는 대부분의 순간 그 양상을 눈에 거슬려 했던 것 같다. 그러다 그렇게 반복되는 행동의 바탕이 되는 동기를 생각하거나 그림의 구체적인 형태가 실제의 대상과 긴밀한 연결점을 가진다고 느끼는 몇몇의 순간에 어떤 반가움과 다정함을 느꼈고 그 지점에서 이번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벽화로 그려지는 익숙한 소재들 중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새'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일상적 공간에서 목격한 '새'와 일상적 공간에서 목격한 '새 그림'을 함께 놓고 전시를 구성하였다. 익숙한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공간을 가로지르는 새들의 모양, 그리고 그려진 새의 모양이 무늬와 같이 박혀 있는 일상적 공간의 벽들. 새를 바라볼 때의 무언가 환기되는 기분과, 대중의 기분을 환기시키기 위해 그려지는 새의 모양을 나란히 놓아 두 가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일치시켜 보려 했다.

작가노트 中

김지민 (Korean, b.1989)은 학부에서 서양화, 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하였고 동시대 일상 풍경을 소재로 한 평면 작업을 계속해가고 있다. 길을 지나며 목격하게 되는 다양한 사물들이 하나의 장면 안에서 만드는 무늬를 기록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화면의 평면적인 질서들을 탐구하고 있다.



01. 타일 두루미, 2024, Acrylic on paper, 33.4x24.2cm
02. 전신주 두루미, 2024, Acrylic on paper, 50x73cm
03. 겨울 고니. 2024, Acrylic on paper, 27.5x25cm
04. 겨울 고니, 2024, Acrylic on paper, 65x100cm
05. 타일 비둘기, 2024, Acrylic on paper, 33.4x191.2cm
06. 역새풀 백로, 2024, Acrylic on paper, 30x30cm
07. 산비둘기, 2024, Acrylic on paper, 25x60cm
08. 갈매기 펜스, 2024, Acrylic on paper, 41x53cm
09. 제비 장식, 2024, Acrylic on paper, 38x35cm
10. 때까치, 2024, Acrylic on paper, 35x41cm
11. 논백로, 2024, Acrylic on paper, 27.5x22cm
12. 두루미 펜스, 2024, Acrylic on paper, 22.2x15.6cm
13. 풀 뱀새, 2024, Acrylic on paper, 25x25cm
14. 전깃줄 참새, 2024, Acrylic on paper, 35x41cm